

#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살인개발 중단이 해법이다

## 살인개발의 잔악무도함을 보여준 용산참사

지난 1월 20일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개발의 잔혹한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수년간 장사를 해오며 생계를 이어오던 삶의 터전에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개발바람은 여기는 삼성 땅, 여기는 포스코 땅, 여기는 대림 땅이라며 제멋대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순식간에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살인개발에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망루에 오른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단 하루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이것이 사인간의 분쟁에 불과하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위해 폭력을 저질러 참사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오며,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철거민과 범대위를 탄압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까지 냉동고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죽이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현재 전국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35곳이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역개발구역으로 묶여 있고 400여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동하며 성실히 살아온 우리 이웃들이 졸지에 철거민으로 전락하는 살인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재벌과 부유층에게 각종 규제완화, 감세 등 선물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경제지표가 나아졌지 않느냐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임금도 동결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한편, 빈곤층,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복지지출이 사상최대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철도파업에 대해서도 탄압정책을 일관하며 정당

한 쟁의행위마저 가로막고 자신들의 정책에 저항하는 이들은 잡아가두며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해결과 살인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자서민이 해고위협에 시달리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서는 총 3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세종시 논란과 행정구역 개편, 재벌언론 키워주는 미디어법, 공공기관 팔아넘기는 공공기관선진화방안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고 서민들의 삶의 현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용산참사 해결 없이 '친서민'은 어렵다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삶을 이어온 우리 이웃들을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용산참사는 정부, 경찰, 건설재벌,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건설재벌과 투기꾼의 이익을 감싸는 살인개발이 근본 원인입니다. 용산참사의 해결 없이 민주주의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일의 희망도 없

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재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개인들이 개발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개발특혜를 부여해주는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용산참사의 해결 주체는 서울시와 정부입니다. 주민들이 강제되지않고도 정당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보장받고 원하는 사람은 개발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책 없이 강행되는 개발사업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입자 대책 없이 강행되는 개발은 세입자주민을 삶의 벼랑에 내모는 살인개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살인개발을 중단하고 용산철거민 열사들이 외쳤던 임시/임대상가 마련 등 세입자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용산참사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용산참사 해결! 살인개발 중단!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 투쟁에 함께합시다!

2009년 12월 7일 ~ 11일 / 서울 전역 개발지역 집회 및 선전전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생존권 보장하라!  
임시, 임대 주택 및 상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라!  
개발사업 과정에 세입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라!  
개발이익 환수 강화하고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라!  
용역폭력 근절하고 강제퇴거 중단하라!

12 / 7(월)	11시	용산구청	/	2시	동작구청
8(화)	2시	중구청			
9(수)	2시	구로구청			
10(목)	2시	성동구청			
11(금)	2시	서초구청			

※ 집중집회 진행 후 주변 및 인접구 선전전 진행

# 2010년 제 2의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 경향신문 만평 09.01.27

## 또 다른 용산참사 예견하는 서울시 '개발시한폭탄'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눈물과 분노로 저마다의 망루를 쌓고 있습니다. 35개의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한 299개의 재개발과 266개의 재건축 구역 등 1천여 개발구역의 뇌관을 품고 있는 서울시는 7·80년대

개발독재정권을 포함해서 30여년간 이루어진 서울 도심의 개발 면적의 2배에 이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면적의 개발을 불과 몇 년 안에 추진하고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곳곳이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견하는 '개발시한폭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집 없는 자, 서울을 떠나라! 집 있어도 돈 없는 자 서울을 떠나라!

뉴타운·재개발에 있어서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쟁점은 바로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입니다. 개발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미만이라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개발의 근본적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개발지역에 73%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당연히 삶과 생존을 유지하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가옥주도 높은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돈이 없으면 살던 동네를 어쩔 수없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공사판이라, 한마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 남아 있자니, 용역깡패의 폭력에 시달려야 합니다.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재개발 지역은 용역들에 의한 일상적인 위협과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 2010년, 개발광풍이 몰려온다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여야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

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지만, 개발지역 철거민들은 여전히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되었다고 포장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이며, 오히려 보상대상 세입자 축소 등 세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후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히려, 2010년부터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2008년 대비 3배의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개발사업의 진행은 제도 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자는 다섯 명이 죽어 나갔는데도, 세입자대책이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이제 개발세력들은 더욱 활개를 치며, 살인개발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 용산참사 해결하고, 살인개발 중단하라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사람은 없고 자본만을 위한 폭력적인 개발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더 이상의 강제철거,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 모이재민 용산참사 해결, 우리의 힘으로!

- \* 매일 저녁 참사현장에서 추모미사와 매주 주말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신 내용은 사진으로 남겨 용산범대위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 \*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모금 계좌: 농협 067-02-302163 / 국민 295401-01-156716 (이중회)]

## 오세훈 시장은 살인개발 책임지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용산철거민, 시청앞 노숙 농성 150여일...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8일부터 용산 4상공철거민들이, 생존권 쟁취와 서울시 살인개발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을, 서울시청 별관 입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농성 이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들을 보내고, 메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대지만, 철거민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은 계속되어 150여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의 염원이었던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겨운 노숙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바랍니다.